


울산시립무용단 창단공연

우주의 모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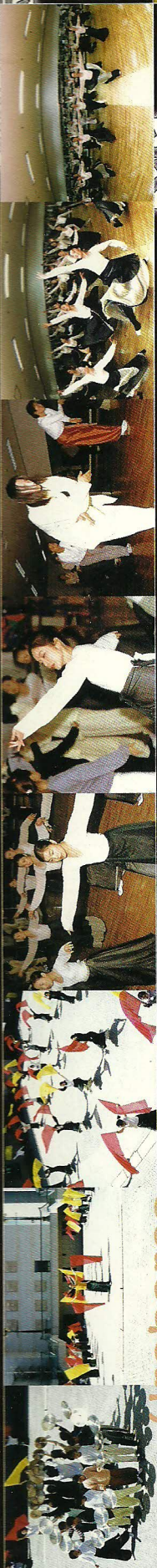
# 우로보로스

2001년 5월 24일(목) 오후 7시 30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주최 :  울산광역시

주관 : 울산광역시립예술단

Uroboros



## 창단공연 「우로보로스」를 올리면서...



울산시립무용단 안무자  
최 은 희

새 천년의 첫 해에 울산지역의 많은 문화 예술인들과 지역민들의 기대감 속에서 무용단이 탄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1세기가 시작되는 원년인 辛巳年에 뱀이 상징하는 번영과 다산·풍요의 의미처럼 지난 해 12월 1일 창단이후 단원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신선한 몸짓으로 이제 창단공연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이번 창단 공연은 생명·탄생을 주제로 한 '우로보로스'란 작품으로 그 의미는 우주를 잉태한 원형, 온갖 생명의 싹이 하나로 어울린 장엄한 원형을 뜻하며 나선형의 소용돌이 문양으로 나타냅니다.

작품의 소재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서 얻었으며 새 생명 탄생의 모태를 새로운 세기의 암각화의 상징성으로 풀어내어 원시시대의 생명력을 기계화된 현실과 대비시켜 미래의 새로운 원천을 제시한 작품입니다.

이번 공연에는 크게 두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어 창작 모색 하였습니다.

첫번째로는 울산의 유적지를 바탕으로한 지역적인 소재를 발굴하여 한국춤을 모태로 하되 한국춤의 정제되어진 내면의 호흡기법과 현대춤의 자유로운 테크니을 펼쳐 시대의 흐름을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현대의 예술 춤으로 승화시키고자 하였으며,

또 하나는 다른 인접분야 영상의 매체를 활용한 실험적인 작업으로 복합 예술을 추구하는데 초점을 두어, 새로운 춤 세계관을 생명의 땅, 문화의 땅 울산에 독창성 있는 시립 무용단으로 태어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민들과의 화합과 조화를 유도하며, 현 시대의 예술의 흐름과 정서를 담아내는 춤 마당을 기획하여 울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무용단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문화예술의 향기가 항상 스며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창단공연을 위해 혼신을 다 하여준 단원 여러분들, 창단을 위해 대본에 기꺼이 응해주신 김열규 교수님과 여러 스텝진 외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줄달음치는 불살, 구심에서 원심으로 또 역으로 원심에서 구심으로 우산살처럼 퍼졌다 움추렸다하는  
물살 그리고 화방수, 소용돌이가 된다.

출 연 - 달의 정 : 현숙희, 무녀 : 홍이경, 물의 정: 김미정, 김은희, 김영경, 김영경, 박계영, 박민정, 박영신, 박정은, 이상희, 이진옥,  
이민정, 이현경, 정운경, 정지현, 최재원, 허민정, 황희정, 2인무(男): 홍석기, 구태우, 나민재, 박원우, 박진수  
2인무(女): 김지은, 김현주, 류호정, 방명희, 유혜경

## 제2장, 오지여 난장이여

광란 또 광란! 바카스의 오지(광기), 난장판이다.  
동물의 비명 소리, 죽어 가는 새들의 퍼덕거림! 작열하는 번개와 청둥!  
땅이 영영 갈라지고 만다. 갈라진 땅덩이가 악마처럼 입을 벌린다. 대지가 여기 저기서 잇따라 함몰한다.  
대지에 핏물이 피고 드디어는 피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집단으로 쓰러진다.  
이윽고 완벽한 어둠, 천지 창조 이전의 어둠이 온 천지에 고인다. 처절한 까마귀 울음. 선천 세계의 종말이다.

## 제 3 부 춤추는 하이퍼 리얼리티

은초록빛 그득한 '엘렉트로 스크린'에 일렁이는 파도 속에서 용이 나온다.  
흰 구름 떠도는 파란 하늘에는 새가 난다.  
갓가지 유전자들의 横像과 크론 양의 울부짖음, 몇 가지 계층의 도형들에 겹쳐서 기괴하고도 요상한 기하학적  
추상무늬의 번쩍임,  
21세기 문명의 상징이다. 악마처럼 삼질하는 포크레인, 귀신처럼 의인화된 이미지가 난무한다.  
무대에서는 픽슬을 타고 움직이는 것 같은 인간들, 그들도 즐지어 선 기계의 행렬이다.  
전자 이미지들과 사람들이 뒤섞이고 부딪치고 격돌한다. 기계들이 사람들을 짓누르고 당당히 미친 듯이 행진한다.  
짓부셔지고 조각난 그래서 너덜거리는 사람들의 팔, 다리, 머리의 조각들이 전자이미지로 떠다닌다.  
머리는 태비인 사람, 손은 노트북 컴퓨터인 사람, 다리는 자동차가 된 사람 등등...  
하이퍼 리얼리티가 보여주는 광란의 영상들 그리고 '사이보그'(cyborg) 인간 같은 사람들의 움직임과 로봇 인  
간의 답답한 행렬.

출 연 - 군무(男): 홍석기, 구태우, 나민재, 박원우, 이성원, 우성호  
군무(女): 김희정, 류호정, 유혜경, 정지현, 황여주

## 에필로그

이제 재생과 화해의 한 마당이다. 흰 수건의 길고 긴 행렬, 평화다.  
그러나 이내 그것은 뜨거워지고 달구어진다.  
하늘의 호흡, 바람의 숨결, 땅의 맥박, 물살의 악동을 타고 춤판은 리듬을 증폭한다.  
달레고 어루만지고 드디어는 서로 일 떠받는 시늉. 모든 춤사위는 참회의 고통에서 경건한 열정으로 화한다.  
그저 온 천지 새가 '쾌지나칭칭'이고 '강강술래'다. 해도 달도 구름도 바람도 물살도 모조리 그렇다.  
다듬이 소리, 장구소리, 징소리... 그러다가 마침내 다들 하나로 열려서 한 덩치의 화방수를 조형한다.  
온 무대의 공간에는 생명의 꽃이 불꽃놀이로 표현되는 것과 함께 실제의 꽃송이들이 눈보라처럼 작열한다.  
등불과 흰 수건이 거대한 거품이 된다.

출 연 - 전 단원